
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계획

2026. 3.

산 업 통 상 부

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계획

< 現 민·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개요 >

- 日 수출규제 직후 긴급대응을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으로 출범('19.7.22, 39명)
 - 소부장 수급애로 접수·지원, 공급망안정품목 상시 모니터링(EWS),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, 으뜸기업 관리 등 업무 수행중
- 현재 유관기관에서 12명 파견 근무 중 (센터장: 공급망국장 겸임)
 - (정부) 산업부, 금융위 / (R&D) 산기평, 진흥원 / (금융) 무보, 산은, 기은, 신보, (업종) 생기연, 자동차연, 전자통신진흥회, 화학시험연구원

□ 지원센터 리부트

- (기능 강화) 중동 상황 수급애로 전담창구, 수급 민원 원스톱 해결
 - 모니터링 대상 품목 확대 및 리스크 증가 품목 발굴·점검
 - * (현재) 공급망안정화 품목 190개 모니터링 → (추가) 중동 수입 고의존 품목 + 석유·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른 전방산업 영향 품목의 수급·애로 집중 관리
 - 범부처 중동 상황 수급 대응창구로 지정, 콜센터(1670-7072) 및 이메일* 등을 통해 업계 애로 접수 및 부처별 지원제도 연계 총괄
 - * 담당자: 황찬수 전문관 / 수급대응 지원센터 대표메일: ask16707072@korea.kr
- (전담지원 체제) 주요 업종별로 전담자를 지정,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끝까지 해결하고, 품목별 동향·리스크 관리 강화
 - * (대상업종) 자동차, 화학·석유·식품, 반도체, 금속·광물, 전자·배터리, 기계·방산·조선, 바이오 등 상황 진전에 따라 대상 업종 확대
- (민관 합동 네트워크) 센터를 중심으로 협회, 경제단체, 부처, 코트라 및 EWS를 통한 핵심 품목 상시 모니터링 및 동향 공유 시스템 가동
 - * (협회·경제단체) 업종별 기업 동향, 기업애로, (정부부처) 지원제도 및 일일동향 정보, (코트라) 주요 국가·품목별 현지 정책 및 수급동향, (EWS) 수출입·기업거래 정보 등

□ 향후계획

- 3.23(월)부터 범부처 중동 상황 수급 대응창구 가동 및 전담지원 개시